

청소년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조혜경¹, 임현숙^{2*}

¹전주대학교 간호학과, ²호원대학교 간호학과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s and Parenting Stress on Support from Spouse and from Family of Married Immigrant Women with Adolescent Children

Hae-Kyung Jo¹, Hyun-Suk Lim^{2*}

¹Department of Nursing, Jeonju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Ho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 양육 프로그램 및 중재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사춘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 154명을 대상으로 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결과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는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에 일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태도인 비 과잉-과잉에 음의 상관관계($r=.046$, $F= 3.629$ $p<.05$)가 있었다.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는 양육 스트레스에 음의 상관관계($r=.105$, $F= 8.903$ $p<.01$)가 있었다.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중 배우자 지지만이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r=.227$, $F= 7.114$ $p<.01$)가 있었다.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지고,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 효과를 주기 위한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의 기회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s and parenting efficacy on parents' educational needs to establish basic data for educational program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to promote parenting attitudes and parenting efficacy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This was a study of descriptive correlation among 154 married immigrant women with adolescent children. The results showed that family support and spousal support influenced parenting behavior and stress associated with childcare. Specifically, spousal support and family support were negatively correlated ($r = 0.046$, $F = 3.629$ $p < 0.05$) with parenting attitude ($r = 0.046$, $F = 3.629$ $p < 0.05$). Only spousal support was negatively correlated ($r = 0.227$, $F = 7.114$ $p < .01$) with stress from children. Moreover, higher support from the spouse and family was associated with lower parenting stress and higher spousal support was associated with lower stress associated with the relationship with the child.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facilitate development of a structured education program for married immigrant women to enhance parenting attitudes, as well as to reduce parenting stress.

Keywords : Adolescent Children, Family Support, Marriage Immigration Women, Parenting Attitude, Parenting Stress, Spouses Support

본 논문은 2018년도 호원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Hyun-Suk Lim(Howon Univ.)

Tel: +82-63-450-7760 email: progress@howon.ac.kr

Received August 8, 2018

Revised August 24, 2018

Accepted November 2, 2018

Published November 30, 2018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한국사회는 오랫동안 단일민족이라는 동질적인 문화를 형성하며, 비약적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영토적 귀속성, 순혈주의, 단일 언어주의가 단일민족을 이루는 한국의 세 가지 주요 특성이었으나[1], 단일 민족 국가로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평등하게’ 어울려 사는 문제를 고민해 볼 기회와 경험을 충분히 갖지 못한 채[2] 다문화사회를 경험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2016년 기준 203만 4878명으로 전체인구 중 3%를 차지하고 있다[3]. 한국 체류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는 14만 7382명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84.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4].

이미 다문화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이민정책을 수정해 온 서구사회와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경우 최근 이민유입국으로 전환되며, 결혼이민자라는 범주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는 연구와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5].

증가하는 외국인 수와 더불어 다문화 가정의 자녀 역시 해를 거듭 할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6만 7806명으로 대한민국 전체학생의 1.07%로 조사되며, 2011년 전체학생의 0.55%에서 2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향후 다문화 학생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6].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국민 20%가 다문화가정 여성과 그 자녀들로 이루어진다고[7] 볼 때, 향후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가정 자녀 증가가 한국사회에 미치게 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변화하고 있는 다문화사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문제이다. 대부분 다문화가정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취약계층이 많으며,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이 언어와 문화격차, 사회적응문제를 가지고 있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비판적이다[8].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은 일반가정의 청소년들에 비해 학력 및 언어구사능력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심리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하나 이상의 문화 속에서 생활하는 어려움도 있으며, 일반가정의 청소년들로부터 받는 편견이나 차별, 멸시를 경험함으로써 심리적 상처를 받아 자신감을 상실할 수도 있다[9].

청소년기는 만 11세나 12세에 시작되나 개인에 따라 상이하다. 또한 신체적 발달은 대부분 18세가 되면 완료되지만 심리적 변화는 10대 중반 이전에 이미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리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급격한 성장이 일어나 혼란을 겪는 시기인 만큼 많은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여[10], 행동발달에 영향을 주므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아동이나 성인과는 다른 심리, 사회적인 특징을 갖는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는 시기이며, 자아정체성 확립의 시기로 연령에 따라 각기 다른 발달 특성을 보이는 시기이다. 초기 청소년기(11~14세)에는 급격한 신체 성장 및 독립성 향이 나타나며, 중기 청소년기(15~17세)에는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분리가 이루어진다. 후기 청소년기(18~20세)에는 신체상 확립, 정체성 확립, 자아존중감이 확립되는 시기이며, 가족으로부터 독립, 정서적 안정, 사회적 역할과 친밀감 형성 등의 특성을 보인다[11].

청소년기의 이러한 급격한 변화, 과정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부적응 상태가 청소년에게 일어날 수 있으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는 다른 발달단계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발달과업을 이루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만 한다[12]. 왜냐하면 이 시기는 청소년의 성격형성과 삶의 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13].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어려움 중에서 이민자로서 문화적응문제와 출산과 자녀양육 문제가 그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조사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그들의 자녀만큼은 그들이 경험한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다 나은 교육을 받으며, 사회의 주류로 성장해 나갈 바란다[14]. 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별, 사회활동의 기회 부족 등으로 이웃과의 교류 및 상호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회적 자원도 부족한 실정이라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적절한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15].

사회적 관계, 사회활동, 의사소통의 기회가 부족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실정상 심리적, 정서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족 특히 남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16].

배우자 지지란 결혼이주여성이 배우자로부터 받기 원하는 물리적, 심리적, 인간관계적, 정보적 도움을 말하는 것으로 배우자 지지는 결혼만족도와 문화적응, 생활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회복, 부부갈등 조정과 결혼생활 유

지에 필요한 주요 변수이다[17].

가족 지지란 결혼이주여성이 이주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 필요로 되는 사랑, 이해, 격려, 신뢰, 관심, 문제해결과 관련된 정보 뿐 아니라 필요한 돈, 물건, 그리고 칭찬이나 인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의미한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 위기 대처, 문제나 갈등 완화,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18].

양육태도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주 양육자인 외국인 어머니의 개인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관들이 반영된 일반적인 행동이나 태도를 의미한다. 자녀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하여 성격의 특성을 형성하게 되고 사회적응 방법과 학습의 동기, 태도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 부모는 자녀에게 행위의 본모기를 보여주는데 부모는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한다. 즉 아버지는 사회적 질서 및 규정, 용감성 등을 가르치고 어머니는 정서발달,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된다[19].

한국사회가 자녀들의 양육에 아버지의 역할보다는 어머니의 역할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 어머니들이 교육을 전담할 수밖에 없는 양육환경에 대해 어려움이 있으며, 결혼이주여성 어머니 자신도 자녀양육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20].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가정은 자녀의 주 양육을 맡게 되는 어머니들이 언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 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 문화간 양육태도의 차이 등으로 한국가정의 어머니들보다 자녀양육에 더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들에게 분노, 좌절감, 불안감,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두통, 불면증과 같은 신체화 질환을 야기 시키며, 양육 피로감을 동반하기도 한다. 부모들이 받는 양육스트레스의 부작용은 부모들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자녀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애착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21]. 인간관계는 상호적이기 때문에 부모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면 자녀도 행복할 수가 없다. 따라서 부모들은 양육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또는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22].

결혼이주 여성의 어려움 중 양육관련 연구는 영유아

기아동을 대상으로 한 양육태도[23,24], 양육스트레스[22,25,26], 양육효능감[27,28] 등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파악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사춘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태도와 관련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용어도 한국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바, 국외의 연구도 아직은 시작 단계에 있다[20].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증가가 한국사회에 미치게 되는 영향력이 점차 커져가는 현실에서 청소년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한 적극적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들이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를 통한 건강한 자녀양육을 위한 정책적 전략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상호중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술적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들의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의 특성과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배우자 지지, 가족 지지,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본론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대상자는 I시와 D시 소재 다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은 (1)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으로 청소년기 자녀를 둔 자, (2) 기초 한국어 과정을 이수한 자, (3) 한국어로 된 설문지를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자, (4)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자로 하였다. 본 설문지는 한글로 작성하였으며,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온 한국어와 모국어가 유창한 결혼이주여성이 통역을 도왔으며, 설문지에 나타난 질문을 자세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본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직접 설명을 통해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 시 개인 정보는 비밀 보장이 되며, 연구 참여 중에도 참여를 거부할 권리와 연구결과는 연구목적 외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결과는 출판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표본크기 산정은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 analysis)를 위해 필요한 적정 표본 수를 산출하였다. 유의수준(α) 0.05, 검정력($1-\beta$) 0.95, 효과크기(effect size) 0.2, 추정하려고 하는 회귀계수(number of predictors)가 2개일 경우 필요한 최소표본 수가 79개, 3개일 경우 88개, 4개일 경우 94개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집된 표본 수가 154개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2017년 5월에 I시와 D시 소재 다문화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및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 후 조사대상 기관장으로 부터 승인을 얻은 후 자료 수집을 2017년 7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배우자 지지

배우자 지지는 Kim[29]이 사용한 ‘배우자의 보살핌 정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총 12점에서 48점 사이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2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61$ 이었다.

2.3.2 가족 지지

가족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Park[30]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근간으로 UNDP project에서 수정, 보완 제작한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긍정문항 12개, 부정문항 13개로 총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환자가 지각한 가족지지도에 대한 질문으로 ‘절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으로 5점 Likert scale을 사용하고 있다. 부정문항은 역환산하여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30]이 척도 개발 당시 신뢰도는 .91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06$ 이었다.

2.3.3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Kim[31]이 개발하고, Kim[32]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용-거부, 자율-통제, 비과잉-과잉 등 세 개 하위 영역의 각 문항 수는 11문항씩 33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4점 Likert 척도이며, 채점 방식에 있어서 수용-거부 영역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를 수용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자율-통제 영역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를 허용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비과잉-과잉 영역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과잉기대를 나타낸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Kim[1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2$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10$ 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수용 Cronbach's $\alpha = .771$, 자율 Cronbach's $\alpha = .807$, 과잉기대 Cronbach's $\alpha = .851$ 이었다.

2.3.4 양육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이 개발한 PSI/SF(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로 Shin가 번안하고 Youn[33]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응답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Likert식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하위영역으로는 일상적 스트레스(부모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자녀와의 사이가 가깝지 않다고 지각하는 등 자녀와의 일상적 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그리고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자녀를 양육하면

서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과 다루기 어려운 행동으로 인해 생기는 스트레스)로 이루어져 있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Youn[3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77$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33$ 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일상적 스트레스 Cronbach's $\alpha = .729$,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Cronbach's $\alpha = .753$,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Cronbach's $\alpha = .716$ 이었다.

2.4 자료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2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 2) 대상자들의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의 특성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 3) 대상자의 배우자 지지, 가족 지지,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 4) 대상자의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7.66±5.46세이며, 자녀의 평균 연령은 13.99±1.99세로 나타났다.

국적은 베트남 59명(3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필리핀 30명(19.5%), 중국 20명(13.0%), 일본 14명(9.1%), 캄보디아 18명(11.7%), 기타 13명(8.4%)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가 63명(40.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교 31명(20.1%), 기독교 29명(18.8%),천주교 15명(9.7%)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의 경우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가 110명(71.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와 부부, 미혼자녀 가구가 38명(24.7%)으로 나타났다.

본인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69명(44.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졸이상이 47명(30.5%), 중학교 졸업 25명(16.2%), 초등학교 졸업 이하 13명(8.4%)순으로 나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	SD
One's own age			37.66	5.46
The age of children			13.99	1.99
Nationality				
China	20	13.0		
Japan	14	9.1		
Philippines	30	19.5		
Vietnam	59	38.3		
Cambodia	18	11.7		
etc.	13	8.4		
Religion				
Christianity	29	18.8		
Buddhism	31	20.1		
Catholic	15	9.8		
No religion	63	40.9		
etc.	16	10.4		
Family composition				
couple + unmarried children	114	74.0		
parents+couple+unmarried children	40	26.0		
Spousal education				
below elementary graduate	3	1.9		
middle school graduate	25	16.2		
high school graduate	90	58.4		
over college graduate	36	23.4		
Spousal job				
professional practice, office job	24	15.6		
service work, production job	37	24.0		
agriculture and fisheries job	30	19.5		
self-employment	26	16.9		
technical work	20	13.0		
inaccupation	7	4.5		
etc	10	6.5		
Marriage satisfaction				
very good	38	24.7		
good	56	36.4		
usually	52	33.8		
dissatisfaction	6	3.9		
very unsatisfied	2	1.3		
Communication				
Korean	115	74.7		
main. Korean+native language	29	18.8		
main. native language+Korean	10	6.5		

났다. 배우자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90명(58.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졸이상이 36명(23.4%), 중학교 졸업 25명(16.2%), 초등학교 졸업 이하 3명(1.9%)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 직업의 경우 전업주부 66명(42.9%), 사무직 25명(16.2%), 전문직 7명(4.5%), 판매직 3명(1.9%), 서비스직 5명(3.2%), 생산직 7명(4.5%), 농·수산업 5명(3.2%), 자영업 7명(4.5%), 기술직 3명(1.9%), 파트타임 9명(5.8%), 무직 11명(7.1%), 기타 6명(3.9%)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직업의 경우 전문직 7명(4.6%), 사무직 17명

(11.0%), 서비스직 12명(7.8%), 생산직 25명(16.2%), 농·수산업 30명(19.5%), 자영업 26명(16.9%), 기술직 20명(13.0%), 무직 7명(4.5%), 기타 10명(6.5%)이고, 결혼 생활 만족도의 경우 매우 만족 38명(24.7%), 만족 56명(36.4%), 보통 52명(33.8%), 불만족 6명(3.9%), 매우 불만족 2명(1.3%)이고, 가족과 대화 시 의사소통 수단인 경우 한국어 115명(74.7%), 주 한국어와 모국어 29명(18.8%), 주 모국어와 한국어 10명(6.5%)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 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1.83이고, 자녀 수는 평균 1.67명으로 1명에서 2명 사이가 가장 많았다. 배우자의 평균연령은 46.14세, 결혼 생활 만족도의 경우에는 5점 만점에 3.21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들의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의 특성과 정도

대상자들의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의 특성과 정도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Table 2)

Table 2. Characteristics and degrees of spouse support, family support, parenting attitude and parenting stress

Categories	M	SD
Spouses support	2.81	0.82
Family support	3.59	0.66
Parenting Attitude	2.44	0.41
Accept - Reject	2.69	0.35
Auto-Control	2.19	0.51
Non-influencing - over	2.46	0.59
Parenting Stress	2.57	0.43
Everyday stress	2.62	0.43
Stress from having relationships with children	2.35	0.59
Stress associated with a child's temperament	2.72	0.52

배우자 지지의 평균(M)은 2.81(SD.=0.82), 가족 지지의 평균(M)은 3.59(SD.=0.66)로 5점 만점의 기준을 중심으로 배우자 지지의 경우에는 다소 낮고, 가족 지지의 경우에는 높게 나타났다. 양육태도의 경우에는 5점 만점에 평균(M)은 2.44(SD.=0.41)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수용-거부의 평균(M)은 2.69(SD.=0.35), 자율-통제의 평균(M)은 2.19(SD.=0.51), 비과잉-과잉의 평균(M)은 2.46(SD.=0.59)으로 중간정도의 수준도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의 경우에도 평균(M)은 2.57(SD.=0.43)로 낮게 나타났고, 일상적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평균(M) 2.62(SD.=0.43),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의 평균(M)은 2.35(SD.=0.59),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의 평균(M)은 2.72(SD.=0.52)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3.3 대상자의 배우자 지지, 가족 지지,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 양육태도(수용-거부, 자율-통제, 비과잉-과잉)와 양육스트레스(일상적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측정항목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Table 3).

배우자 지지와 다른 항목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족 지지(0.263)와의 상관관계가 높고, 양육스트레스의 경우에는 일상적 스트레스(-0.368)와의 상관관계가 높고,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0.263),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0.165)와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통제와의 상관관계는 비과잉-과잉(0.773), 양육스트레스 중에서는 일상적 스트레스(0.272),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0.371),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0.246)와의 상관관계가 높고, 비과잉-과잉과의 상관관계는 일상적 스트레스(0.235),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0.283),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0.168)와의 상관관계가 높고,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는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0.619),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0.469)와의 상관관계가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는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0.470)와의 상관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 측정항목의 신뢰성을 검정한 결과 배우자 지지의 Cronbach's α 값이 0.961, 가족지지 0.906으로 나타났고, 양육태도 측정항목 중에서 수용-거부에 대한 Cronbach's α 값이 0.771, 자율-통제 0.807, 비과잉-과잉 0.851로 나타났고, 양육스트레스 측정항목 중에서 일상적 스트레스의 Cronbach's α 값은 0.729,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0.753,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0.716으로 Nunnally와 Bernstein(1993)이 주장하는 기준 0.7 보다 높기 때문에 신뢰성이 입증되었다. 가족지지와의 경우에는 일상적 스트레스(-0.230),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0.136)와의 상관관계가 높고, 양육태도 중에서는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upport for the spouse, family support, parenting attitude and parenting stress

Categories		Spouses support	Family support	Parenting Attitude			Parenting Stress		
				Accept - Reject	Auto-Control	Non-influencing-over	Every day Stress	Stress from having relationships with children	Stress associated with a child's temperament
Spouses support	ICC	1.000							
	Sig.								
Family support	ICC	0.263	1.000						
	Sig.	0.001***							
Accept - Reject	ICC	0.053	0.076	1.000					
	Sig.	0.511	0.351						
Auto-Control	ICC	-0.102	-0.006	0.384	1.000				
	Sig.	0.207	0.937	0.000***					
Non-influencing - over	ICC	-0.131	0.128	0.416	0.773	1.000			
	Sig.	0.105	0.112	0.000***	0.000***				
Everyday Stress	ICC	-0.368	-0.230	-0.050	0.272	0.235	1.000		
	Sig.	0.000***	0.004***	0.541	0.001***	0.003***			
Stress from having relationships with children	ICC	-0.263	-0.136	-0.060	0.371	0.283	0.619	1.000	
	Sig.	0.001***	0.094*	0.457	0.000***	0.000***	0.000***		
Stress associated with a child's temperament	ICC	-0.165	-0.050	-0.197	0.246	0.168	0.469	0.470	1.000
	Sig.	0.041**	0.534	0.014**	0.002***	0.037**	0.000***	0.000***	
Cronbach's α		0.961	0.906	0.771	0.807	0.851	0.729	0.753	0.716

* : p<0.1, ** : p<0.05, *** : p<0.01

수용-거부와의 상관관계는 자율-통제(0.384), 비과잉-과잉(0.416),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0.197)와의 상관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3.4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R²값이 0.020으로 회귀식의 설명력이 2%로 낮을 뿐만 아니라, 분산분석표(ANOVA

table)의 F값이 1.522, 유의확률(p값)이 0.222로 유의수준(α) 0.1에서조차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잔차의 독립성 검정결과 Durbin-Watson은 1.461로 2에 가깝고,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정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0.1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VIF)이 10보다 작기 때문에 가정이 충족되었다.

Table 4. Influence of Spouse Support and Family Support on Parenting Attitude

Table 3.4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Collinearity Statistics	
	B	Std. Error	Beta			Tolerance	VIF
(Constant)	2.36	0.19		12.15	0.000		
Spouses support	-0.06	0.04	-0.119	-1.43	0.155	0.93	1.07
Family support	0.07	0.05	0.112	1.34	0.182	0.93	1.07

F-value=1.522, p-value=0.222, R²=0.020, Durbin-Watson=1.461

* Dependence Variable: Parenting Attitude, * : p<0.1, ** : p<0.05, *** : p<0.01

3.5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수용-거부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태도인 수용-거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R²값이 0.007로 회귀식의 설명력이 0.7%로 설명력이 상당히 낮고, 분산분석표의 F값이 0.526, 유의확률(p값)이 0.592로 유의수준(α) 0.1에서조차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태도인 수용-거부에 미치는 영향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의 독립성 검정결과 Durbin-Watson은 1.971로 2에 가깝고,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정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0.1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VIF)이 10보다 작기 때문에 가정이 충족되었다.

Table 5. Influence of Spouse Support and Family Support on Acceptance-Rejection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Collinearity Statistics	
	B	Std. Error	Beta			Tolerance	VIF
(Constant)	2.36	0.19		12.15	0.000		
Spouses support	-0.06	0.04	-0.119	-1.43	0.155	0.93	1.07
Family support	0.07	0.05	0.112	1.34	0.182	0.93	1.07

F-value=1.522, p-value=0.222, R²=0.020, Durbin-Watson=1.461

※ Dependent variable: Acceptance-Rejection, * : p<0.1, ** : p<0.05, *** : p<0.01

3.6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자율-통제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태도인 자율-통제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R²값이 0.011로 회귀식의 설명력이 1.1%로 설명력이 상당히 낮고, 분산분석표

의 F값이 0.832, 유의확률(p값)이 0.437로 유의수준(α) 0.1에서조차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태도인 자율-통제에 미치는 영향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Influence of Spouse Support and Family Support on Auto-Contro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Collinearity Statistics	
	B	Std. Error	Beta			Tolerance	VIF
(Constant)	2.31	0.24		9.49	0.000		
Spouses support	-0.07	0.05	-0.108	-1.29	0.200	0.93	1.07
Family support	0.02	0.06	0.022	0.26	0.794	0.93	1.07

F-value=0.832, p-value=0.437, R²=0.011, Durbin-Watson=1.468

※ Dependent variable: 자율-통제, * : p<0.1, ** : p<0.05, *** : p<0.01

3.7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비과잉-과잉에 미치는 영향

잔차의 독립성 검정결과 Durbin-Watson은 1.468로 2에 가깝고,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정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0.1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VIF)이 10보다 작기 때문에 가정이 충족되었다.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태도인 비과잉-과잉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R²값이 0.046으로 회

귀식의 설명력이 4.6%로 설명력이 상당히 낮았지만 분산분석표의 F값이 3.620, 유의확률(p값)이 0.029로 유의수준(α)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모형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잔차의 독립성 검정결과 Durbin-Watson은 1.564로 2에 가깝고,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정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0.1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VIF)이 10보다 작기 때문에 가정이 충족되었다.

배우자 지지(-0.177)와 가족 지지(-0.175)의 경우에는 유의수준(α)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양육태도인 비과잉-과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 지지의 경우가 가족 지지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 지지의 경우가 가족 지지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Table 7. Influence of Spouse Support and Family Support on Non-Exception-Exception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Collinearity Statistics	
	B	Std.Error	Beta			Tolerance	VIF
(Constant)	2.26	0.28		8.20	0.000		
Spouses support	-0.13	0.06	-0.177	-2.15	0.033**	0.93	1.07
Family support	-0.16	0.07	-0.175	-2.12	0.035**	0.93	1.07

F-value=3.620, p-value=0.029**, R²=0.046, Durbin-Watson=1.564

※ Dependent variable: 비과잉-과잉, * : p<0.1, ** : p<0.05, *** : p<0.01

3.8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R²값이 0.105로 회귀식의 설명력이 10.5%로 설명력이 상당히 낮았지만 분산분석표의 F값이 8.903, 유의확률(p값)이 0.000으로 유의수준(α)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모형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잔차의 독립성 검정결과 Durbin-Watson은 1.836으로 2에 가깝고,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정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0.1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VIF)이 10보다 작기 때문에 가정이 충족되었다.

배우자 지지(-0.292)와 가족 지지(-0.085)의 경우에는 유의수준(α) 0.01에서 배우자 지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배우자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우자 지지가 높아질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지지가 가족 지지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Table 8. Influence of Spouse Support and Family Support on Parenting Stres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Collinearity Statistics	
	B	Std.Error	Beta			Tolerance	VIF
(Constant)	3.19	0.19		16.53	0.000		
Spouses support	-0.15	0.04	-0.292	-3.66	0.000***	0.93	1.07
Family support	-0.05	0.05	-0.085	-1.07	0.288	0.93	1.07

F-value=8.903, p-value=0.000***, R²=0.105, Durbin-Watson=1.836

※ Dependent variable: Parenting stress, * : p<0.1, ** : p<0.05, *** : p<0.01

3.9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인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R²값이 0.155로 회귀식의 설명력이 15.5%로 설명력이 다소 낮았지만 분산분석표의 F값이 13.807, 유의확률(p값)이 0.000으로 유의수준(α)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모형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잔차의 독립성 검정결과 Durbin-Watson은 1.933으로 2에 가깝고,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검정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0.1 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VIF)이 10보다 작기 때문에 가정이 충족되었다.

배우자 지지(-0.330)와 가족 지지(-0.143)의 경우에는 유의수준(α) 0.01과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인 일상적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높아질수록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줄어들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지지의 경우가 가족 지지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Table 9. Influence of Spouse Support and Family Support on Everyday Stres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Collinearity Statistics	
	B	Std.Error	Beta			Tolerance	VIF
(Constant)	3.46	0.19		18.02	0.000		
Spouses support	-0.18	0.04	-0.330	-4.26	0.000***	0.93	1.07
Family support	-0.09	0.05	-0.143	-1.85	0.066*	0.93	1.07

F-value=13.807, p-value=0.000***, R²=0.155, Durbin-Watson=1.933

※ Dependent variable: 일상적 스트레스, *p<0.1, **p<0.05, ***p<0.01

3.10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인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R²값이 0.074로 회귀식의 설명력이 7.4%로 설명력이 다소 낮았지만 분산분석표의 F값이 6.019, 유의확률(p값)이 0.003으로 유의수준(α)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모형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잔차의 독립성 검정결과 Durbin-Watson은 1.963으로 2에 가깝고,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정결과 공

차 한계(tolerance)가 0.1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VIF)이 10보다 작기 때문에 가정이 충족되었다.

배우자 지지(-0.244)와 가족 지지(-0.071)의 경우에는 배우자 지지만이 유의수준(α)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배우자 지지만이 양육스트레스인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우자 지지가 높아지면 양육스트레스인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어들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지지의 경우가 가족 지지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Table 10. Influence of Spouse Support and Family Support on from having relationships with children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Collinearity Statistics	
	B	SD	Beta			Tolerance	VIF
(Constant)	3.08	0.27		11.29	0.000		
Spouses support	-0.18	0.06	-0.244	-3.01	0.003***	0.93	1.07
Family support	-0.06	0.07	-0.071	-0.88	0.380	0.93	1.07

F-value=6.019, p-value=0.003***, R²=0.074, Durbin-Watson=1.963

※ Dependent variable: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 : p<0.1, ** : p<0.05, *** : p<0.01

3.11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인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R²값이 0.227로 회귀식의 설명력이 22.7%로 설명력이 다소 낮았지만 분산분석표의 F값이 7.114, 유의확률(p값)이 0.000으로 유의수준(α)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모형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잔차의 독립성 검정결과 Durbin-Watson은 1.987로 2에 가깝고,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정결과 공차한계(tolerance)

가 0.1 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VIF)이 10보다 작기 때문에 가정이 충족되었다.

배우자 지지(-0.163)와 가족 지지(-0.008)의 경우에는 배우자 지지만이 유의수준(α)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배우자 지지만이 양육스트레스인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우자 지지가 높아지면 양육스트레스인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지지의 경우가 가족 지지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1).

Table 11. Influence of Spouse and Family Support on Stress Related to Children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Collinearity Statistics	
	B	Std. Error	Beta			Tolerance	VIF
(Constant)	3.04	0.25		12.32	0.000		
Spouses support	-0.10	0.05	-0.163	-1.96	0.052*	0.93	1.07
Family support	-0.01	0.07	-0.008	-0.09	0.927	0.93	1.07

F-value=7.114, p-value=0.000***, R²=0.027, Durbin-Watson=1.987

※ Dependent variable: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 : p<0.1 ** : p<0.05, *** : p<0.01

4.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해보고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의 특성과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의 하위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각 변수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결과 대상자들의 국적은 베트남이 가장 많았고 필리핀, 중국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국가의 문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범국가 차원의 노력이 시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자들의 종교가 무교 40.9%로 가장 많다는 것은 사회적 지지체계 중 종교기관의 접근이 아직 많이 필요한 상태이며, 종교기관의 영역에서 할 일을 우리가 숙제로 남겨 두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들의 가족구성이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대부분으로 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의 스트레스 보다는 대상자들이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핵가족화가 된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배우자와 함께 하는 여가생활이 이들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Kim 등[34]의 연구결과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준다. 이를 참고하여 결혼이주여성의 프로그램 개발 시 배우자를 함께 참여시키는 프로그램과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접목시킬 필요도 있겠다.

둘째, 본 연구 결과 대상자들의 배우자 지지 정도는 가족 지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양육태도도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양육태도에 비해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일상적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순이었다. 이는 Kim 등[34]

의 논문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Kim 등[34]의 경우 다문화가정의 결혼적응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배우자 및 가족의 지지가 조절효과로 작용한다고 하였지만 배우자 지지 보다는 가족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16]의 또 다른 주장은 가족지지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며 그에 따른 만족도는 한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정서적 안정감과 위기대처를 높이며 신체화 질환 같은 정신적 문제를 덜 겪게 한다고 하였다. 결국 가족 지지도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는 불가분의 관계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 결과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와 부모효능감이 높을 경우 부모의 양육방식이 더욱 온정적이고 사회적 지지와 지각이 낮을수록 양육방식이 더욱 통제적이었다는 Jung[35]의 논문과는 대치된다. 본 연구에서 보았던 가족 지지와는 다른 변수 즉, 사회적 지지를 보았다는 차이는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 결혼적응도가 높다는 Kim 등[34]의 주장과도 대치된다. Hong 등[36]는 사회적 안전망과 지지가 미흡할 경우 그에 대한 대안으로 배우자 지지를 선택했지만, 결혼이주여성의 지식수준과 부모역할 이해를 통해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줄여보자는 Choi 등[38]의 의견은 본 연구결과와 같은 경우의 대안으로 선택해봄직 하다.

넷째, 본 연구 결과 배우자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지며, 이 때 배우자 지지가 가족 지지에 비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높을수록 일상적 스트레스가 낮아지며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 중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사회적지지 중 비공식적 지지의 원천인 배우자 지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온 Hong 등[3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들의 연구에서도 배우자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게 나왔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배우자 지지가 자녀양육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Roh[37]의 연구결과와도 같다.

하지만 자녀양육스트레스가 낮다는 것이 결혼이주여성들과 자녀들의 삶의 질, 또는 교육의 질을 무조건적으로 높이는 것은 아니다. Youn[33]의 연구 결과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교육요구도가 높아지며,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의 사회성 지도영역, 자녀의 학습과 진로지도 영역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면 교사로서의 역할이 확대되어 역할부담은 늘어나겠지만,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의 습관과 행동수정 지도가 높아지며 자녀의 성장발달에 대한 이해 또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도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부모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질향상 요구도가 높을수록 부모불안이 높게 나타났다는 Choi 등[38]은 부모-자녀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선행되어야할 조건으로 부모가 자녀진로 및 적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들고 있다. 본 연구결과처럼 배우자 지지, 가족 지지를 바탕으로 하되 자신의 자녀에 대한 이해,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배워 나갈 필요가 있으며 사회 안정망에서 이 역할을 담당해줄 필요가 있겠다. Hong 등[36]의 주장에서도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지원하는 사회적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국가적 차원의 교육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도 있겠다.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와 중년기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접하며 더욱 성숙되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의 한국에서의 삶에 완전한 적응이 되도록 양육스트레스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이 대거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양육스트레스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스트레스 수위조절에 배우자의 지지를 활용한다면,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예 가 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양육을 하며 학교생활적응, 진로 및 적성, 부모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질 향상 요구도가

높을수록 부모의 불안이 높다고 한 Choi 등[38]의 연구를 참고할 때, 양육스트레스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모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부모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질향상,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지며, 어머니의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37]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양육방법 그리고 부모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여성과 그들 자녀들의 사회참여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도 우리나라의 중요 구성원인요 자산이기에 결혼이주여성들과 그들의 자녀에 관련한 연구들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지지, 가족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배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추후 노력들이 연구결과로 속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5.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심층면담 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평균 연령은 37.66 ± 5.46 세, 자녀의 평균 연령 13.99 ± 1.99 세로 나타났고, 국적은 베트남, 종교는 무교, 가족구성인 경우 부부 및 미혼자녀가구, 학력 고졸, 배우자학력 고졸, 수입 200~300만원, 의사소통수단 한국어, 본인직업 전업주부, 배우자직업 농수산직, 결혼생활만족도 만족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나 본 연구의 표본상 특징이 모집단 전체를 대변한다 할 수는 없다.

본 연구결과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는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에 일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태도인 비과잉-과잉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는 양육스트레스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짐을 알 수 있었으며,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 중 배우자 지지만이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시행함에 있어 적절한 표본수를 유지하였

으나,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단언할 수 없는 점, 대상자들의 국적 분포가 대한민국 결혼이주여성들의 국적 분포와 동일하다고 자신할 수 없는 점 등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추후 연구 시 더욱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References

- [1] M. S. Kim. "The 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policy directions", *Journal of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vol. 164, pp. 1-8, 2012.
- [2] Y. J. Shin, "The effects of discrimination on depression of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 Ident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2017.
- [3] Ministry of Justice [Internet]. Monthly report on immigration and foreign policy statistics, July 2016 Immigration Trend Report From: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7&strWrtNo=208&strAnsNo=A&strFilePath=moj/&strRtnURL=MOJ_40402000&strOrgGbnCd=104000
- [4]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internet]. Statistical Yearbook, 2016. From: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7096>
- [5] E. M. Kim, O. K. Yang, H. Y. Lee, Multicultural society of Korea, Nanam, 2010.
- [6] The Education Ministry, Status of multicultural students in 2014. From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43&boardSeq=5712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209&opType=N>
- [7] Statistics Korea. Projections of population and births [Internet]. Seoul: Statistics Korea; 2015 [cited 2016 November25]. Available from:http://kostat.go.kr/portal/korea/kor_ko/5/2/index.board?bmode=read&aSeq=334108
- [8] H. C. Lee, Education Status and Educational Vision of Multicultural Students, Lifelong Education Policy Forum, 2009.
- [9] J. Joo, "Current State of Policy on Teenager in Multicultural Family and Further Development", *Journal of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 Vol. 21, No 2, pp. 81-99, 2011.
- [10] K. J. Kwak, J. M., Kim, J. M., Yoo, "The Relation of Poverty, Parent's Variances, Home Environment and Child Development on the 3-year-old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0, No. 3, pp.83-98, 2007. https://www.krm.or.kr/krmn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1772&local_id=10028034)
- [11] A. E. Kazak, B. W. Derosa, L. A. Schwartz, W. Hobbie, C. Carlson, R. F. Ittenbach, J. J. Mao, and J. P. Ginsberg, "Psychological outcomes and health beliefs in adolescent and young adult survivors of childhood cancer and Controls,"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Vol.28, No.12, pp.2002-2007, DOI: <https://doi.org/10.1200/JCO.2009.25.9564>
- [12] L. J. Gwon, An introduction to young adult studies, Kyoyookgwahaksa (kyoyookbook), 1996.
- [13] E. M. Hyun, "Adolescent Runaway : The Impact of Family , Individual Factors and Coping Behavior",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38, No. 2, pp.41-55, 2000. <http://www.ndsl.kr/ndsl/commons/util/ndslOriginalView.do?cn=JAKO200011921061920&db=JAKO&koi=KIST11.1003%2FJNL.JAKO200011921061920>
- [14] J. S. Kim, "The Deviance and Countermeasures of Multicultural Families Youth", *Journal of Police science collection of writings*, Vol. 7 , No 2, pp. 141-165, 2012.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d=ART001716222>
- [15] G. G. Jeong, Y, H, Kim, K, E, Park, E, A, Lee, J, H, Park, S, A, Lee, "Current status and Policy development for social support for th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living in Kyeonggido : *Kyeonggido Family Women's Research Institute*, 2007.
- [16] S. O. Kim, H. S. Lim, G. C. Jeong, "Effects of Support from Spouse and Family on the Mental Health of Marriage Immigrant Women",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3, No.11, pp.221-235, 2013.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3.13.11.221>
- [17] Thang. Ha Minh, A study on International marriages between Korea and Vietnam after 1992 - a case of cultural adjustment for Vietnamese women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2005.
- [18] E. S. Kim, A Study on Stress Coping Methods of the Mental Disorder - Focusing on the Family Function and Family Support Perceived by Mental Disord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5.
- [19] G. J. Kim, An Ethnographic Study on Korean-Vietnamese Multicultural Families' Parenting, Unpublished doctor's thesis, University of Pyeongtaek Graduate School, Pyongtak, 2009.
- [20] H. S. Lim, "The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s and Parenting Efficacy on Educational Needs of Married Immigrant Women with Adolescent Children",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7, No. 12, pp.202-214, 2017. DOI: <https://dx.doi.org/10.5392/JKCA.2017.17.12.202>
- [21] J. E. Han, "The effect of Acculturation and Social Support on the Child Rearing Efficiency of Immigrant Mothers for Marri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2007.
- [22] C. H. Kim, "Study of Mother's Stress Caused by Rearing and Need for Support in Multicultural Fami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2010.
- [23] K. S. Hyun, "Effect of Conflict and Upbringing Attitude of Internationally Married Couple on Children's Maladjustment to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2008.
- [24] S. J. Jung, "The Effect of the Type of simulated parenting on the Child's Attack",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l University, Seoul, 2014.
- [25] D. H. Kim, S. Y. Kim, H. J. Shin, The study on impact of spousal support and social support on foreign Wives's parenting stress in rural areas, *Family and culture*, Vol. 19, No.3, pp. 53-78, 2007.
DOI: <http://doi.org/10.21478/family.19.3.200709.003>
- [26] S. M. Jeon, "A study on Parenting Stress and Child-Care Support Needs of Mothers with Infa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Ulsan, 2006.
- [27] M. H. Choi,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s sense of self-efficiency and the degree of agreement between the parent and the parent's attitu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egu, 2002.
- [28] D. H. Kim, "A study of effect on parenting efficacy of immigrant women for marriag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acculturation", Unpublished doctoral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8.
- [29] H. J. Kim, "A study of Spousal Support, the Demand for Health Education, and Quality of Life for Married Female Immigrants", *Korean Journal Women Health Nursing*, Vol.14, No.1, pp.5-11, 2008.
- [30] J. W. Park,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docto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1985.
- [31] K. J. Kim, "The Effect of Academic Achievements and Perceive Parental Attitudes on Self-Concept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docto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Vol.23, No.2, pp.35-52, Seoul, 1985.
- [32] Kim, S. J. The Effect of Difference between Mothers' Parenting Attitude and Children's Perception on Children's Emotional Maladaptive Behavior, Unpublished Master degree, Jeju University, Jeju, Korea, 2001.
- [33] E. H. Youn, "A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the Needs for Parent Education With a Focus on Parents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ju University, Jeju, Korea, 2013.
- [34] S. O. Kim, H. S. Lim, G. C. Jeong, "Moderating Effect of Support from Spouse and Fami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age Adaptation and the Quality of Life of Marriage Immigrant Women: Differenc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15, No.10, pp.253-266, 2015.
DOI: <https://dx.doi.org/10.5392/JKCA.2015.15.10.253>
- [35] M. H. Jung,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Parenting Practices of Immigrant Women Focusing on Parent 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0, No. 8, pp. 257-276, 2013.
UCI : <http://uci.or.kr/G704-000387.2013.20.8.005>
- [36] E. M. Hong, S. Y. Shin, "A Study on the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Stress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Multiculture & Peace*, Vol.9, No.3, pp. 101-121, 2015.
DOI: <http://doi.org/10.22446/mpisk.2015.9.3.005>
- [37] Y. H. Roh, "The Study on the Self-Esteem, Family

Support and Parenting Stress of Married Women Immigrat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Division of Social Welfare and Consumer Science,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2011.

- [38] M. K. Choi, J. H. Shin, H. G. Gu, S. Y. Park, H. A. Han, D. B. Choi,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Stress and Knowledge Level and Demand of Parent Education for Adolescents' Mothe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29, No. 5, pp. 227-242, 2008.
UCI: <http://uci.or.kr/G704-000080.2008.29.5.012>

임 현 숙(Hyun-Suk Lim)

[정회원]



• 200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관심분야>

성인간호, 노인간호, 다문화여성

조 혜 경(Hae-Kyung Jo)

[정회원]



• 201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관심분야>

정신간호, 노인간호, 다문화여성